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非暗非明의 자리가 ‘진짜’

새말귀(新話頭) ③

본래 그 자리가 밝은 것인데 밝은 것이 어떻게 보이나요? 뵈. 봤던 예사로 뵈. 밝다는 이런 인식조차도 없어. 원래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이 보여. 또 어두운 것이 보인다 말이지.

그러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이 자리가 진짜라 말하여. 앉을 때는 그 걸 봐야 돼. 그걸 한 번 보고 싶다. 이거 보입니다. 앉았어. 캄캄한 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것을 이것을 한번 보리라 하면 나타나는 거여. 처음에는 이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후백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는 빛깔이 나타나. 광명도 보이고 빛깔도 나타나. 예수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 불교도 열심히 믿는 사람은 부처님 나타납니다. 그 부처님이 어쨌든지 역시 환상이거든요. 다 지가 만든 것이거든요. 예수가 나타나면 지가 만든 예수 아니에요? 꼭 한 가지입니다.

그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것이 환하게 나타나. 산하대지가 환하게 뵈. 어쩔 땐 달도 뵈고 해도 뵈고 별도 뵈. 그러나 그건 과정으로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대도 넘어가도 비암비명을 내가 그대로 알아서 써. 그래서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을 써.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을 써.

이런 화두를 솔직한 말로 한 반 년만 더 가서 보세요. 처음에 알아. 이치상으로 알아. "내 손이 행동을 가졌다. 내 손가락이 주판을 놓는다. 잘 놓아야 되겠다. 잘 놓아야 되겠다"는 요 생각 하나 뿐이여. 잘 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진 성품이 없는 거다. 잘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다" 이러한 생각을 미리 가

져 놓고 잘 놓아야 되겠다는 것은 간단한 거여. 나중에 생각만 "잘 해야 되겠다" 하면 벌써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걸 끌고 다닌다는 이걸 자꾸 재인식하는 거라. 그러하지 않아요? 그리 되는 거여.

처음에는 잘 안돼. 심거워. 또 안다 하더라도 구대여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데, 글을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꾸 "내가 자체성이 없는 손을 가지고서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주판을 잘 놓아야 되겠다. 발을 잘 걸어야 되겠다 운전을 잘 해야

“

몸뚱어리도 하나의 환상 부처님의 출현도 환상 환상 아닌 진상 구해야

새말귀는 시간 따로 필요 없다 눈 뜨면 "몸뚱이가 깬다" 식사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자체성 없는 나' 를 보면 하루 종일이 '화두'

”

되겠다." 그러하면 "옳지 요것은 무정물이다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허공성이다. 그러나 이렇게 잘 놓아야 하겠다는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다" 이것이 굳혀질 것 아니에요? 한 반 년만 가서 보세요. 딱 굳혀질 겁니다. 딱 굳혀지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 그 자체가 내 몸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수박에는 도리가 없어. 도리가 없어.

이래 되면 집에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 쌀을 씻으면서. 이런 자체성이 없다. 내가 쌀을 씻는다 쌀을 잘 씻어야 되겠다. 물 잘 때야 되겠다.

다, 밥해야 되겠다. 전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아가, 진짜 내가, 참 내가, 지혜가 없는, 아는 것이 없는 이 손발을 움직여서 밥도 짓고 밭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회사도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알자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여기 사실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지금 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요결(몸) 나라고 봤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내지. 내 관리물이니까 나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나지만 자체성이 없는 거라. 이걸 내라고 해서 영동한 모습에 딱 들어앉았다 말이지. 들어앉았지만 이 모습은 자꾸 변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변하는 거라. 그런 걸 믿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 어른들도 화두를 내 놓은 거라. 화두를 딱 줘서 다른 생각을 안 하도록,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해서 화두를 전념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 말하여.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것이 안돼. 시간이 없어. 하지만, 새말귀를 할려면 시간이 필요 없어. 눈 딱 뜨면 내. 깬다. 내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가 깬다. 벌써 내다 하면 고련 뜻이 다 들어. 내다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 변소가 가더라도, 내가 변소 간다. 내가 세수 한다. 세수 잘 해야 되겠다. 밥 잘 먹어야 되겠다. 하루 종일 화두예요. 새말귀는.

물론 스님네들이 하는 화두는... 하루 종일 하는 거라. 잠잘 때만 놓았다 뿐이지. 어떤 사람은 잠잘 때도 생각을 해. 잠잘 때도 생각을 한다며 하루 종일 화두거든요. 중생도 내다. 내 일 잘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화두예요. 그럼 어쩌다 꿈에도 내다 이래져. 꿈에도 이래져. 하루 종일 화두를 가지는 것은 스님네와 일반 중생과의 그 입처가 다를지언정 하루 종일 화두를 가지는 것은 매일반이라 말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할 수 있는 팔자를 못 타고 났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방편만 조금 고치면 우리도 화두를 가질 수 있다 말하여. 도리어 이 화두가 어떠한 면으로 봐서는 더 빠르지는 않으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화두를 가지는 것이 이전 화두나 지금 화두나 빠르고 늦는 것이 있겠습니까만. 실에 있어서는 같은 소리이겠지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받들어 지공하는 모두가 '공양'

③ 광수공양(廣修供養)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以諸最勝華 樂塗香傘蓋衣服香 燈燭皆如妙高聚 我悉供養諸如來 我以廣大勝解心 深信一切三世佛 悉以普賢行願力 普遍供養諸如來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광수공양은 널리 여러 사람에게 공양한다는 뜻. 공양은 지공하여 영양되는 것을 지어 바친다는 것. 결국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생명을 먹어야 유지되는 것이다. 안 먹으면 안 된다. 만일에 이 먹는 본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가사의한 꿈을 가진 허무맹랑한 사람이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또 아주 중대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일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요(堯) 임금, 순(舜) 임금 같은 이가 제왕(帝王)의 자리를 자기 아들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릴만한 사람에게 물려줄 때 제위(帝位) 계승의 표로서 술(鬻)을 전수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술으로 만백성을, 모든 인민을 잘 먹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임금 자리를 물려 줄 때 술을 주었다. 우리 불교계의 일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나 스승에게서 법(法)을 받을 때, 전발(傳鉢)했다. 의발(衣鉢)을 받았다. 바루를 받았다 하는 것인데 바루는 밥 먹는 그릇이다. 밥 먹는 그릇을 받았더니, 불교 역시 먹는다는 일을 얼마나 중요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먹는다는 일을 우리는 중요시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받아먹는 일도 그렇거니와 남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 바친다는 일도 똑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한다. 그러나 짐승이나 벌레가 먹는 것과 사람이 먹는다는 일은 다르다. 사람이 먹는다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 차도(茶道)에서는 불을 피워 물을 익혀 먹는다고 한다. 사람은 물을 익혀 먹는 것이 다르다. 물을 익혀 먹는다는 말 속에는 밥이며, 국이며 음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사람은 문화생활(文化生活)을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음식을 또 만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화두를 가지는 것이 이전 화두나 지금 화두나 빠르고 늦는 것이 있겠습니까만. 실에 있어서는 같은 소리이겠지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고 음식을 담은 그릇은 좋은 것으로 골라 정하게, 깨끗히 다루어야 한다. 흔하들 공양하는 것을 보면 음식을 처리

하는 것이 매우 신중치않다. 장은 더듬먹스럽게 담구면 구린내가 나고 잡스런 군맛이 생겨 영 못쓰게 된다. 이런 장으로 만든 음식으로 공양을 한다면, 이런 공양이 아니라 남에게 모욕을 주는 결과가 된다. 실증이 나게 하는 것이 공양이 아니라, 환희심으로 음식을 달게 먹도록 해야 된다. 우리 절의 식당에서 공양을 지어 올리는 사람을 공양주라, 또는 시주(施主)하는 사람을 시자(施者)라고 하며 공양을 받는 사람을 수자(受者)라고 한다. 시자와 수자와 공양물, 이 세 가지는 깨끗해야 된다. 이를 삼륜(三輪)이 청정하다고 한다. 공양물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물건 자체를 두고하는 소리이기도 하지 않, 이를 간수하고 다루는데 있어서 정성껏 진선 진미하게 만들어진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양을 하더라도 반지럽게 마지못하여 내는 것처럼 하는 것과 마음껏 성의를 다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시자·수자·공양물 즉 삼륜은 청정해야 하며 정성껏 성의를 다해야 한다. 봉사 역시 공양을 의미 공양 통해 평안에 이른다.

“ (日傘=옛날의 큰 파라솔)을 갖다 바친다. "그리고 등을 모아 수미산(須彌山)과 같이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한다."

공명 공양이라고 하여 어두운 밤에 등축(燈燭)을 밝히어 공양한다. 석가가 나신 성탄일엔 관등제(觀燈齋), 관등불사(觀燈佛事)를 하는데 부처님은 세상의 등불이시다 하는 뜻으로 그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넓고 큰 마음으로 삼세불(三世佛)께 드린다." 어진 행원(行願)의 힘으로 여러 부처님께 두루 두루 공양은 손이 크게, 흠뻑 많이 정만해서 바쳐야 되지 적게 조금 하는 것은 안 하느니라 못하다. 저 수미산 덩이처럼 크게 해서 바치라는 것이다. 남에게 반지럽게 보이는 것은 대접이랄 수 없으므로 마음을 크게 풍족스럽게 가져 아주 풍염하게 공양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담은 그릇은 좋은 것으로 골라 정하게, 깨끗히 다루어야 한다. 흔하들 공양하는 것을 보면 음식을 처리

하는 것이 매우 신중치않다. 장은 더듬먹스럽게 담구면 구린내가 나고 잡스런 군맛이 생겨 영 못쓰게 된다. 이런 장으로 만든 음식으로 공양을 한다면, 이런 공양이 아니라 남에게 모욕을 주는 결과가 된다. 실증이 나게 하는 것이 공양이 아니라, 환희심으로 음식을 달게 먹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우리는 넓고 큰 환희심으로써, 보현보살의 넓고 어진 행원의 힘으로써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체의 여래 앞에 낱낱이 다 공양해 드려야 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는지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 수 내 용

- 1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 2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 3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 4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 5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 6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 ◆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 ◆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향과 혼돈
 - ◆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향
- 7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 ◆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 8 효소핍질 : 사철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 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듯이 옮기고 영산회사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도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